

창의와 도전...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전략과제 추진

전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0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3일 기획조정실 산하 브리핑을 통해 창의와 도전으로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한 4대 분야 14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4대 분야는 △100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 △누구나 존중받는 시민 중심도시 구현 △AI 기반 디지털 행정도시 구축 등이다.

먼저 시는 빠르고 강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매주 1회 특별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운영하며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또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 예산의 54%인 7,729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집행 특례



활용과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완주군민 대표단과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전북자치도·정차권과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토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5,377억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와 고액납세자 사전컨설팅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청사 별관 확충과 행정동 통합 등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청사 별관 확충의 경우 올해 현대해상 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월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년희망단(40명)' 구성 △관내 6개 대학과 소통간담회 운영 △청년 참여예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취업지원금 무료대여 지원 △청년취업지원금 대출 지원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주기업난 취업지원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청년취업 2000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나아가 시는 올 하반기에는 (가칭)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총 3년 동안 국비 7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으뜸 늘봄교육 △균형 잡힌 교육환경, 으뜸교실 △K-문화로 세계화 선도, 으뜸인재 △국제화 교육의 중심, 으뜸전주 등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끝으로 시는 AI 기반 지능형 행정서비스와 철저한 사이버 침해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3일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공판장 첫 경매인 초매식에 참석해 을사년 한 해 풍년과 공판장 활성화를 기원했다.

익산원예농협 공판장 초매식 개최

전북농협, 을사년 풍년·무사안녕·매출 1천억원 달성 기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3일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공판장 첫 경매인 초매식에 참석해 을사년 한 해 풍년과 공판장 활성화를 기원했다.

이 날 초매식에는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을사년 올 한 해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 1천억 달성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도내 농협 공판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며 전북 관내 농가들의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익산원예농협 공판장 외에 전주, 남원, 정읍, 김제, 군산 등 6개 시·군에서 공판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거래물량 9만 8801톤 거래금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의 거래물량은 3만 3791톤 거래금액은 약 880억 원으로 도내 공판장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을사년 올 한 해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 1천억 달성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도내 농협 공판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며 전북 관내 농가들의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장수농협 제54기 정기총회 1900여명 참석 성황리 마쳐

3일 장수농협 2층 회의실에서는 장수농협 54기 정기총회가 개최, 장수농협 대의원, 임직원,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의장·의원 및 유관사회단체장 등 19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 결과 장수농협 총 자산은 4천백여원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든든한 장수농협이 됐다.

이날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혼연일체 헌신을 다한 결과이며, 당기 순이익 15억1,600만원의 순익을 달성하여 출자비율 5억5,900만원과 사업이용량에 대한 이용과배당 3억5,600만원을 배당했으며, 사업준비금으로 3억7,800만원을 적립했고 장수농협 하나로마트, 면세유, 사료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직접사업비로 2억6,900만원을 추가 환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김동수 전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특강 동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6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바이오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노

사발전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별 지원사업이 총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함과 동시에 바이오진흥원과 유관기관 13개 분야에 대한 상담소가 차려져 기업측면에서 궁금한 사항과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유관기관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도내 농생명 바이오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온라인 큐레이션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17일까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2024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온라인 큐레이션 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도내 식품 제조기업의 온라인 시장 확대를 목표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마켓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매

출액 약 7억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농)(유)브라더팜의 당일 손질 고품질 풍천만물장어’, ‘(농)더미들래(주)의 더블치즈떡’, ‘(유)모아푸드 빼빼는 닭발’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 매출 증대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으며, 2025년에는 이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사업은 맞춤형 큐레이션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도내 식품 제조기업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4월~17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2025년 3월 중으로 서류평가(1차)와 현장평가(2차)로 나뉜다. /김옥기 기자

전북탄소진흥원,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조성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기관의 기술 역량개발 및 수요시장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과제 공모를 2월 말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다.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조성 및 확산사업은 탄소소재 및 응용기술에 대한 기술사회화 및 수요시장 창출, 탄소소재 분야 5대 핵심 수요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등 국내 탄소산업의 시장 경쟁력 도모를 위해 기획·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국내의 인증지원사업에 대해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국내 탄소소재 및 융복합부품을 실제 수요 환경(수요처)에 적용, 기술사회화 및 사업화를 통한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 제작·개발,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3억원 규모이며 총 7개 과제(과제당 국비 3억원 이내, 2년에 대해 지원한다).

장비국산화 지원사업은 국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장비의 적용 확대와 기술 수요 창출을 위해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에 대한 성형 및 가공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4억원 규모로 총 4개 과제(과제당 국비 2.85억원 이내)를 모집한다.

국내의 인증 지원사업은 탄소소재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한 국산 탄소융복합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탄소소재와 응용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5.3억원 규모이며, 항공부품, 전장 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 탄소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한 인증취득에 총 10개 과제를 모집한다. /김옥기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